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94 예수사랑큰잔치

마지막 그물을 당김시다

금주 11일(화)~15일(토)에 초청전도집회
다음 주일 16일, 오후 5시 예수사랑 큰잔치
금주에도 태신자를 방문, 전도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인도자와 태신자는 반드시 각 교구 천막을 거쳐 접수해야

예수사랑 큰잔치의 막이 오른다. 지난 7월부터 준비해온 금년도 예수사랑 큰잔치가 금주 11일(화) 오후 7시부터 초청전도집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15일(토)까지 계속될 초청전도집회는 11일(화), 12일(수), 13일(목), 14일(금)은 오후 7시, 12일(수), 15일(토)에는 오전 10시 30분에 모인다.

금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는 이미 작성하고 기도하여온 태신자를 대상으로 7월초부터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금주로 초청의 내용이 담긴 14신까지 모두 발송하며 태신자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여 왔다.

이제 편지도 끝났고 지난주부터는 초청장을 발송하고 태신자를 방문하여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나올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예수사랑 큰잔치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매주일 IV부 예배후 전 교구일꾼들이 본당에 모여 당회장 신성종 목사로부터 특별교육을 받고 있고, 수요일 예배후에는 구역장과 구역공과 인도자들이 모여 구역공과 예배공부를 당회장에게 직접 배우고 있다.

교회학교는 각 부서별로 실시

교회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중전화카드, 위생팩, 전도용 메시지가 담긴 소책자 등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고 각 교구에서는 교구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는 당일에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부 교회학교는 '94 예수사랑 큰잔치를 전후한 주간에 각 부서 특성에 맞게 날짜를 잡고 준비하고 있다. 10월 16일 예수사랑 큰잔치 당일에도 교회학교는 정상적으로 회집된다.

16일(주일) 저녁 찬양예배시 총동원 잔치

11일(화)부터 15일(토)까지 모이는 초청전도집회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결신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초청전도집회에서 교회에 처음 나온 태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의 초점은 바로 이 초청전도집회에 달려 있다.

그리고 다음 주일(16일)에는 평상시와 같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저녁 찬양예배시에는 초청전도집회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초청전도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태신자 등은 교우가 모여 잔치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초청전도집회시 태신자에 대한 안내

11일(화)부터 15일(토)까지 열리는 초청전도집회에 참석하는 태신자는 각 교구 텐트에 초청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초청장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집회시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결신초청을 할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봉사자가 도와서 등록카드를 작성케 할 계획이다. 이날 결신한 등록자들에게는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이내 교회에 나오면서 등록하기로 작성하고 온 사람들은 교구 안내위원의 도움을 받아 새가족등록실에서 등록절차를 밟으면 된다.

금주 저녁에 모이는 성경연구원의 강의, 전도집회 관계로 휴강

금주 초청전도집회관계로 저녁에 모이는 성경연구원 강의는 모두 휴강하게 된다.

남는 혈액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10월 9일(오늘), 헌혈합니다

10월 9일(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당 앞에서

교회는 오늘[10월 9일(주일)] 헌혈을 실시한다.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1년에 두 차례씩 헌혈을 해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데 앞장 서 오고 있다.

이번에도 오늘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본당앞 광장에서 헌혈을 한다.

인체에는 10% 가량의 잉여혈액이 늘 유지되고 있다. 헌혈도 이 10% 안에서 하게 된다. 이 만큼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언제나 나눌 수 있는 여분의 혈액이다(1회 헌혈량 320~440cc).

또한 인체에서는 매일 500cc 정도의 혈액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헌혈한 사람이 헌혈대를 떠나기도 전에 새로운 피가 만들어 진다.

· 헌혈을 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1. 사랑의 실천



당신의 헌혈로 생명을 구합니다.
Give Blood... Save Life...

2. 혈액의 예치



헌혈 증서는 영구적으로 유효하며 본인만 물론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옵니다.

3. 건강진단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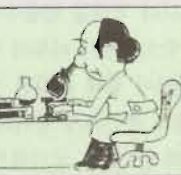
체중, 혈압, 혈액형, 혈액 비중 검사



Rh 음성혈액형, B형간염항원, C형 간염항체검사



간기능검사(S-GPT), 매독 항체검사



B형, C형 간염항체가 양성이거나 간기능검사가 기준치 이상일때는 S-GOT, 총단백, 알부민, 콜레스테롤, 요소질소, A/G비 검사

⇒ 개인별로
통보

이 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할 때에 이들에게는 배고픔도 있었고, 또 목마름도 있었고, 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아주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이방 족속들과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기는 그렇게 염원하던 가나안땅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신앙의 혼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바알신을 섬긴 일이 없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생활이 보다 더 풍족해지면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즉 신앙에 혼돈이 생기면서 이들에게 위기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 41년 동안 어려움과 험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부터야말로 세상과 타협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수많은 신앙적인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도 우리 교회를 이처럼 성장시켜주시고 부흥시켜주신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시면, 우리 교회는 더욱 발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될 것이며 많은 교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겠습니다.

1. 새 왕조의 핍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8절) 요셉을 등용한 왕조는 히소스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셈계통의 왕조입니다. 애굽에서 계속 내려온 왕의 계통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셈계통의 왕조인 히소스 왕조가 권력을 잡으면서 요셉을 등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제17대 왕조인 히소스 왕조가 몰락하고 제18대 왕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바로 저 유명한 푸트모스 1세인데 그들은 요셉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조는 지금까지 요셉이 해왔던 모든 것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입니다.

푸트모스 1세는 그 당시 세 가지의 핍박을 했는데 첫째는 중노동을 통해서 국고성을 짓게 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11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두번째는 고역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14절) 흠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는 등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중노동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억지로 막 괴롭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번째 단계의 핍박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피서 남자여는 죽이고 여자여는 그는 살게 두라”(16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 자상에서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실행시켰던 것입니다.

2. 핍박의 이유와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7절에 보면 그 원인이 나오는데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들이 창성하고 장대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되고 번성하니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되면 핍박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핍박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2절에 첫번째 핍박정책의 결과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그렇습니다. 밖으로부터 아무리 핍박이 있고 학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번성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더욱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밖에서 오는 어떠한 고통도 결코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 핍박정책의 결과는 첫번째 것과 거의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이들에

게 더 많은 것과 더 수고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핍박정책의 결과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렇게 핍박을 했지만 애굽의 18대 왕조인 푸트모스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남자를 죽이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니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의 왕조는 세계를 지배하는 왕조였으나

충현장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출 1:8-22)



신 성 중

<목사·당회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핍박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절에 들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온 땅에 가득하여졌다고 했고,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오히려 교회는 성장되는 결과가 옵니다. 예를 들어 배움이 붙는다. 비람이 붙면 광장에 어려움이 많습다. 그러나 오히려 이 배움을 잘 이용하면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떠돌까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요 17:14)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좋게 해주고 후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결과입니다. 아마 저의 틀림없이 무서운 결과, 아주 나쁜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지금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살기가 편안하고 히브리인들을 계속해서 후대했다면 이들은 애굽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것이고 애굽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태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며 유지되어 왔던 하나님께 대한 유월신앙을 이들은 저버리게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성은 상실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애굽의 새 왕조 푸트모스 왕조를 통해서 오히려 이 백성들을 선별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고난이란 우리에게 영원한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고 더욱 기도하게 하고 더욱 신앙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해야 할 일

본문에 보면 이들은 이러한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만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본문의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이것은 삼권을 쥐고 있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정의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 것이니 대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떠한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갖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들은 왕성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은혜 가운데 번성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다른 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충현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던 대교회로서의 우리 앞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못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일꾼들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장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배출케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모세와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보수성, 순수성, 목양 일념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성령운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출애굽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다 더 은혜있는 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 생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모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무질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이처럼 왕성하게 자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산파들이 그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로서 본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 생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주님은 저를 위해 많은 사람과 아름다운 자연과 심지어는 수백 자루의 촛불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정 연 희

(새가족 양육부)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의미없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시하게 보이는 작은 상황이라도 그것은 주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사랑 큰잔치에 저의 작은 목소리를 쓰시고자하는 하나님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저는 예수라는 분을 도덕책에서나 들어 보았을 뿐 도무지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고고하게 사신 분이셨는데 제가 자랄 때 할아버지께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양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법 그럴듯한 양반이었고 자라가는 저와 사촌들은 할아버지나 큰아버지께 신사임당의 손녀가 우리 몇대 할머니이시고, 몇대 할아버지는 판서였고, 몇대는 참판이었고, 몇대 할아버지는 지조를 지키다 돌아가신 이야기 등등을 전설처럼 들어야 했지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인 셈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늘 가문의 명예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행동은 양반답게 조심해야 했고 말씨도 구별되는 말씨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는 너무나 다정다감히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결혼하여 7년간 아이가 없어서 온갖 공을 들인 끝에 저를 얻으셨는데 저에게 쏟아 붓는 사랑은 한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으로 눈이 부셨고 행복하였고, 우리들이 사는 등지는 따뜻하고 단란했습니다. 제게 오직 한 분 밖에 없는 아버지를 들썩이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제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남자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뿌리깊은 유교사상에 젖어 살아 온 저에게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구체적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또 하늘에 올라 가시고 대신에 성령이 오셨고 차기는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저를 만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 이야기만 빼면 그는 꽤 괜찮은 남자였지요. 그의 집안은 우리처럼 양반을 내세우기보다 실력을 중요시 여기는 진보적인 가정이고 그의 형제들은 수재들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만나기만하면 하는 예수 얘기는 참 밤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두 아버지가 필요한가?”

“그는 혼자서 살기가 두려운 것이리라. 아냐, 그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똑똑한 남자인데, 왜지?”

‘성령이란 신은 아무래도 이상해. 들어본 적이 없잖아. 이상한 종교인가?’

의구심은 끝이 없었고 결혼하기에도 망설여졌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대단한 반대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요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고 중·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은혜를 맛본 경험이 있고 그때는 네비게이터 선교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터라 아주 기회란 듯이 맹렬히 전도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만만치 않아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반박을 하자 그는 저를 목사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목사님은 학교 선생님과 같은 그저 직업 중의 하나일 뿐이라 생각했으므로 당돌하게 질문을 했고 온갖 망령된 말로 목사님과 그를 어이없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껄껄 웃으시며 제게 따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니요, 믿음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설전은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었고 시간은 갔습니다. 그즈음에 우연히 지금 생각하면 필연이지만 집안에서 후례자식이란 책망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기를 필사적으로 감행하던 사촌 오빠, 사랑하는 친구, 심지어는 이웃집 아주머니 등의 예수군단이 갑자기 다가왔고 한결같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애걸하더군요. 저는 예수쟁이들은 별 주책을 다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 다. 그때 저는 문학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문학작 감성으로 자연에 심취해 있었지요. 자연 앞에서는 당돌함과 교만이 사라지고 마음은 겸허해졌으며 자연에 대한 경외감으로 무릎을 꿇는 겸손과 경전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연의 신비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연을 탐구했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이 저를 감동시켜 자연은 눈물의 대상이었습니다.

동넙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장엄한 햇살, 지천에 흐드러지게 핀 들꽃의 순결, 흐르는 물소리나 새의 지저귀, 낙엽 쌓인 숲, 은행잎이 떨어져 구르는 모습, 흰눈에 쌓인 세상 등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자연 앞에 행복했고 자연 앞에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만든 이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 솟씨의 놀라움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인가 큰 비밀이 존재하는데 나는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습니다. 책 속에도 해답은 없었고 학교에서도 속 시원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은 마치 숙제를 마치지 못한 아이의 마음 같았습니다.

한편 그는 언제부터인가 데이트 장

소를 슬슬 교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목사님께서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터라 잘 대해 주셨지요. 그해 성탄절, 교회에서 드리는 자정 촛불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몹시도 초를 좋아해서 촛불 때문에 불도 내 본 적이 있을 만큼 그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제 맘은 촛불 예배란 얘기를 들을 때부터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자정이 되었고 그의 교회에 들어 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촛불이 그렇게 아름답게 일렁이며 빛을 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기껏해야 한 자루의 촛불이나 보면서 마음을 달래던 저에게, 그것은 하나의 기분 좋은 충격이었고 지금도 제 마음 속에는 그 때의 광경이 커다란 사진인양 박혀 있습니다.

촛불과 함께 사람들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 했고 이미 천 구백살이 훨씬 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들의 모습은 야릇하게 제 마음에 감동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밤에 주님은 제 삶 속에 씨앗 하나를 단단히 심으셨습니다. 저는 열렬하게 씨앗을 주신 주님에게 가슴을 열어 드리며 그 분이 씨앗을 심는 일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씨앗은 저의 삶 전체를 뒤 흔드는 위대한 씨앗이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것은 제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십 오년 전의 그 초대의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잔잔하게 설레어 오는 것을 느끼지요. 그렇게 그분은 저를 부르셨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참 여러가지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을 때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쓰듯 말입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많은 사람과 아름다운 자연과 심지어는 수백 자루의 촛불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자 자연에 대한 의문이 자동으로 해결되었음은 물론 온전히 그것을 누리게 되었지요. 만드신 분을 알았고 만드신 뜻을 알았고 사랑하며 누리는 법을 알았으니 오랜 숙제는 다 해결된 셈이지요. 제 아집과 교만과 죄를 허물치 않으시고 잔치에 초대해 주신 주님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저를 불리고 계십니다.

저는 뻔뻔스럽게도 저의 좋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주께 맡겨 놓고 감사, 기쁨, 소망, 사랑 같은 좋은 것으로만 살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저를 꾸지람하신 적도 있었지요. 저의 교만을 깨우치시려 매를 드신 적도 있었고 훈련을 시킨 적도 있었지만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목에서의 훈련이려니 하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부르시듯 은혜를 주실 때에도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화끈

하고 흥미진진한 방법이 아니라 성격에 맞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시시콜콜 하찮은 얘기까지 다 의논하고 지혜를 구하며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신앙 생활을 해 왔습니다. 주님은 귀찮으실 텐데도 묵묵히 다 들으시고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힘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가 부모와 같다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가 우리 몸을 키워주신다면 교회는 영을 키워줍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겼고 이제 주님이 또 한 교회, 충현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삼월에 등록하였고 지금은 처음 예수님을 알았을 때의 아기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첫 걸음 단계인 새신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과 2과 3과…… 한 과 한 과 공부하면서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은 대단히 재미있지요. 그 옛날처럼 그와 나란히 앉아 공부하며 새삼스레 그에게 감사하지요. 옛날의 그는 지금 제 남편입니다. 저는 한 동안 교회를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고 그때 고아처럼 참담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방황이 끝나고, 충현의 일원이 된 지금 저는 몹시도 행복합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제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교회 도서관이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가 주는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데에는 수 많은 분들의 봉사가 있기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저도 언젠가 새로 오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소요소에서 섬겨 가시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충현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홀로 걸으시기도 하셨던 갈릴리를 떠 올리면서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갈릴리홀에 호젓이 나와서 오래오래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대개는 제가 ‘주님 주님’ 하고 따라다니지만 어느때는 주님이 저를 은밀히 부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저를 부르신 날입니다.

“애야 어디 있니? 날 좀 도와주렴”

“예 주님, 여기 있어요”

“예수 사랑 큰잔치에 너처럼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 목소리 좀 빌려주나?”

“안돼요, 주님 안돼요, 저 사람 많은 데 못가요 싫어요”

“너 전도하겠다면 모여 있는 사람 앞에 못 서면 어디 가서 전도할래?”

“예, 예, 알았어요 주님 제가 못하는 것 주님 책임이에요. 저는 주님 도구니까요. 도구의 잘못은 주인이 지시는거죠?”

“애야 내가 왜 그런 염려까지 하니? 넌 몸만 빌려주면 돼”

“예 맞아요, 주님, 제가 아직도 그래요”

저를 사용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십오년 전에 저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토막소식

- ◆ 탁아부는 지난 10월 6일(목) 화양구곡에서 교사 야외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 영아부는 오늘 총동원 전도의 날로 인형극과 맛있는 간식과 선물을 준비하고 어린 양들을 기다리고 있다.
- ◆ 초등1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과 한 교사가 한 명의 새신자를 갖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학동국민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전도를 하고 있다.
- ◆ 초등5부는 10월중에 성경퀴즈대회를 준비하며 기도중이다. 범위는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이다.
- ◆ 초등6부는 94년도 총결산 안드레 초청잔치를 10월 30일에 개최한다. 지금까지 전도를 하지 못한 학생은 이번 기회에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다.
- ◆ 중등1·2·3부의 학생들이 주 안에서 지체됨과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한 시와 찬양의 밤 행사가 10월 29일(토) 열린다.

이 행사는 갈릴리홀에서 진행되며 중등1·2·3부의 학생과 고등부의 찬조출연, 복음송 가수 전영대의 출연과 성극 「새 그루의 나무」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이를 통하여 주위의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 대학부에서 '대학부 물물교환 센터'를 개설하였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 쓰지 않아서 나누어줄 수 있는 물건이나, 필요한 물건을 토요일 조장 공부,

GBS 후, 저녁예배 후에 메추라기홀 앞에서 교환한다.

또한 10월 10일부터 14일 초청전도집회, 10월 16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10월 연속기도회로 모인다. 11월 5일에는 예수 영접과 신앙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여는 다. 1부에 21세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박성철 에벤에셀회장이 강의하며 2부에는 직업영역별 좌담회(본 교회 중견 직업인 15명)도 갖는다.

◆ 청년2부는 오늘 총동원 전도초청잔치를 개최한다. 또한 10월 30일(주일)에는 면려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 새가정부는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예수사랑 큰잔치를 개최한다. 신혼가정과 잃은 가정(6주 이상 결석가정), 3년 미만 결혼가정을 대상으로 모인다. 또한 임시총회에서 정기총회 일자를 12월 둘째주에서 10월 마지막주로 변경하였다.

◆ 장년2부는 10월 23일(주일)에 출애굽기 전 장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 장년3부는 12월 4일에 이사야서 전장과 로마서 1~6장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 소망부는 오늘 예수사랑 큰잔치를 개최한다. 장기결석자와 태신자들이 함께 주님에 대한 소망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 에바다부는 예수사랑 큰잔치 홍보와 에바다부 홍보를 위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본당 앞 뜰에서 12시 ~ 12시 30분까지 교사수와 중창단이 찬양을 드린다.

또한 학생들을 수송할 자원봉사자(운전기사)를 모집하고 있다. 매 주일 오전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 : 9일(주일) - 11일(화) 부평 양문교회 부흥사경회 인도
· 신성종 목사 : 11일(화) - 15일(토) 예수사랑 큰잔치 초청전도집회 인도
2. 94 예수사랑 큰잔치가 11일(화)부터 16일(주일)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게 하시사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초청전도집회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영력을 더해주시옵소서.
3. 충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사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4. 길림성기독교 신학원의 설립과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5. 대통령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하옵소서.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이 나는 분들과 대형 1층 및 보통 1층 면허소지자를 구한다. 연락처는 에바다부(교단 416) 신상수 집사님께 하면 된다.

◆ 경로대학에서는 10월 13일(목)에 새로운 삶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연다. 미국 세인트조셉대학원에서 노인학을 전공하고 현재 한국 실버스탠드 연구실장인 정하숙 선생의 강의로 베다니홀에서 오후 1시에 열린다.

◆ 베드로남전도회 소속 회원들이 모두 모여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본당 앞 광장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에는

부부가 모두 참석하게 된다. 체육대회에 특별히 신입회원들에 대한 환영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베드로남전도회는 충현교회 소속의 40대 남성도들로 구성된 전도회이다.

◆ 전도위원회는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소재의 셋별교회(이성기 전도사)에 음향시설 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보내기로 했다.

◆ 루디아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국군통합병원 교회 및 입원환자들을 위해 위문품과 먹을 준비하여 위문했다. 루디아전도회는 충현교회 소속의 40대 여성도들로 구성된 전도회이다.

징검다리



그때가 좋은 때지요

구 명 신

(명예 전도사, 새가족위원회 부지도)

창백한 얼굴에 허얀 모시두루마기를 입은 가냘픈 한 청년 부흥사의 외침에 감동받은 한 여인, 그 청년 부흥사의 거처를 알기 위해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만나지 못하다가 서울은 지 7년만에야 충무로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섬기던 교회에서 그대로 떠날 수는 없어 집을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1960년 9월에 충현교회에 와서 마침내 5년 후에 정식 등록하고, 여성성가대에 들어가 총무와 대장으로, 여전도회에 서기로 봉사하다가 뜻밖에 충현교회에 부름을 받고,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다.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어찌 감히 충현교회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저 산간벽지나 시골에 가서 일하려고 생각은 했었지만,

처음에 일을 시작한 곳은 대학부. 내가 오히려 대학생들에게서 배워야 할터인데,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데, "목사님! 제가 어찌 대학부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다음

말은 내가 해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지" 이래서 나는 대학부에서 정말 죽기까지 일할 줄 알았는데 2년만에 심방부로 부르시면서 새신자부를 맡겨주셨다.

말을 때마다, 울길 때마다 나에게에는 모두가 자신이 없는 것 뿐이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면서, 울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을 맡겨 주심에 너무 감사한 것 뿐이었다. 나에게에는 하루하루가 천국생활이었다. 이러한 심정은 겪어본 자 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일이면 울면서 "하나님 나는 언제 마음놓고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혼자 다니게 하시겠습니까?" 반항 점 때를 쓰던 때를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새벽 1, 2시에 "급한 환자가 있으니 와주세요. 지금 방금 운명했습니다"라고 해도 잠 못자게 한다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것 불러주시니 고맙지만 하고, 주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

다.

새신자부에서 10년간을 일하면서 똑같은 강의를 10년이나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셨나보다. 매주 토요일이면 처음 시작하던 때와 똑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하신다. 하루는 성령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토요일에 손님이 와서 별로 준비도 못하고 조용히 기도 시간도 못가진 채 강단에 섰다. 얼마나 청중의 반응이 없고 쌀쌀한지 자신도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안나고 진땀만 일이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나도 알 수 없으나 새신자부를 89년 9월말까지 하고 10월부터 못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찢먹는 에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 새신자부를 그만둔 뒤에도 매주 토요일이면 내가 강의를 하던 때와 똑같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OO과를 OOO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새신자들이 꼭 은혜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1년 반을 하다가 준비하던 일은 멈추고 내 마음을 달래기 시작했으나 아쉬운 마음은 꽤 오래 갔다.

해놓은 일은 없어도 나이는 들었고 91년말 주일저녁에 '은퇴식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쁘다고 할까, 섭섭하다고 할까. 저녁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모든 성도들이 '축하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옆문으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하게 일하다가 평안히 은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가,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진짜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아직도 일하고 싶은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다음해 정초가 지나면서 얼마나 허전하고 백이 풀리는지 밤이면 기도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안절부절못하다가,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고 무슨 일이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증을 해야 겠다 결심한 그날로 바로 시험장에 가서 등록하고 3월에 필기시험 통과, 5월에 면허를 따고, 7월에 차를 구입했다.

그러는 동안 교구에 빈자리의 보충역도 하고 병원환자도 돌아보다가 93년도에는 정식으로 18교구를 맡겨 주시더니 94년에는 상상으로 못했던 꿈에도 그리던 새가족부로 정식 임명이 났다. 다시 한번 고목(古木)에 꽃이 피게 된 셈이다. 시한부 인생, 언제까지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알 수 없으니 일할 수 있는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에 놓고 준비하느라 교구에서 구역에서, 매우 바쁘시지요, 그래도 그때가 좋은 때지요. 암마들이 에기 넣고 학교 보내고 치닥거리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시지요. 그래도 그때가 좋은 때지요!"

필요한 때 불러주사
충성하게 하소서
방해자가 되지 않고
필요한 자 되게 하소서

· 이 난은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난입니다. 순서는 이름의 가나다순입니다.